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 - 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 -

김 용 표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현행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 종교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은 과연 가능할까? 한국의 불교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난제는 종파교육을 어떻게 교육적 차원의 종교성 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그 해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는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개정하여 불교교육연합회에서 편찬한 『종교(불교)』(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와 대한불교진각종에서 펴낸 『종교(불교)』(진각종, 2002) 등 두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개념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의 종교교육학적 고찰과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종교교재의 내용은 종교교육의 목표 설정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세 차원의 종교교육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 교육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통해 중층적으로 조명하였다. 종교교재의 일반적 적격성 평가는 편집 체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교육목적과 목표 분석, 학생의 수준과 교육내용, 전체와 부분의 순환적 교육과정, 계열성과 계속성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불교 종립학교의 두 가지 교재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재의 방향을 종교과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종교교육과 보편적 종교학 교육의 상호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와 세계종교사의 맥락에서의 불교이해를 통한 보편과 특수성의 종교교육 범례학습을 구상하였다.

핵심 주제어 : 불교계 종립학교, 종교교재, 종교교육, 교육과정, 불교교육

I. 문제와 논의의 방향

본 연구는 현행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 종교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은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한국의 종교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는 종파교육을 어떻게 교육적 차원의 종교성 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그 해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교양 교과서의 하나로써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은 종교계 종립학교의 신앙적 종교교육과의 상치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른바 보편적 종교문화교육의 이념과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표로 하는 종파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적 갈등은 종교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모호성은 ‘종교과목 설치의 법률적 모호성’, ‘종교교육내용의 모호성’, 그리고 ‘종교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호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¹⁾ 이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모호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개정된 현행 불교계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 교재에는 불교교육연합회에서 편찬한 『종교(불교)』(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와 대한불교진각종에서 펴낸 『종교(불교)』(진각종, 2002) 등 두 종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으로 편찬된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불교시청각 교재』(조계종출판사, 2004)가 있다. 본고는 이 세 교재 중 불교교육연합회에서 편찬서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개념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의 종교교육학적 고찰과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불교계 종교교재의 내용분석을 위한 틀로 종교교육의 유형론에 입각하여 종교문화교육의 차원, 종교성교육의 차원, 종파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교재의 내용은 종교교육의 목표 설정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세 차원의 종교교육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 교육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통해 중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종교교재의 일반적 적격성 평가는 외형적 편집체제와 그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교육목표의 분석, 학생의

1) 정진홍,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연구』 제13권, pp. 3-13 참조. 정진홍은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모호성의 극복을 위해 첫째, 종교교육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료화하는 일인데 그것은 종교교과를 ‘종교문화의 이해’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 둘째, 개개 종립학교는 종교 행사나 당해 종교의 종교교육을 과외활동을 통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를’ 교육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일, 또는 종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반드시 다른 선택교양 과목도 개설하도록 하는 일, 셋째, 인류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인식을 도모하는 ‘종교문화의 이해’를 여타 공립학교에서도 선택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일, 넷째, 이러한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적절한 종교교사의 양성 제도 확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수준과 교육내용, 계열성과 계속성의 원칙, 이웃종교 기술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불교계의 대표적인 두 교재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종교과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종교교육과 보편적 종교학 교육의 상호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와 세계종교사의 맥락에서의 불교이해를 통한 보편과 특수성의 종교법례 학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한 신앙적 종교교육이 모두 보편적 학교 교육의 이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앙교육도 교육적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종교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은 각 종교의 성격과 교의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건학이념에 따라 불교정신을 통한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²⁾

그러면 불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에서 추구하고 있는 불교적 인격이란 무엇일까? 대승불교의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인 불교적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고자 한다.

- ① 자아와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인,
- ② 자기와 세계가 본래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실천하는 자비인,
- ③ 자신의 궁극적 구원자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주체인,
- ④ 성[열반]과 속[윤회]를 둘로 보지 않는 자유인³⁾

불교적 인격의 특징은 종교적 성자의 인격 [聖者性]⁴⁾에도 발견 될 수 있는 보편적 덕목

2)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대학헌장 제4조)

3) 김용표,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연구 제2집 (1997), pp. 33-54 참조. 필자는 네 가지 덕목을 지닌 인간상을 더 세분하여 10가지 이상적 불교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1) 삼보에 귀명하여 항상 예경하며 찬탄하는 인간 (2) 계행을 지키며 생활 속에서 선정을 닦는 인간 (3) 제법의 공함을 통찰하는 지혜로운 인간 (4) 항상 불성 현전의 기쁨 속에 사는 인간 (5)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인간 (6)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 (7) 모든 존재를 자기 생명으로 깨닫는 자비로운 인간 (8) 역사와 사회속에 불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 (9) 타종교에 열린 마음을 지닌 성숙한 종교적 인간 (10). 종교공동체 발전과 전법에 헌신하는 인간. 김용표, 「불교적 인간교육의 이념과 방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편,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회의 논집』 (2001), pp. 28-41 참조.

4) William James는 가장 성숙된 종교적 인간인 성자의 인격적 특징을 ‘聖者性 (Saintliness)’이라 명명하고 그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일상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보다 넓고 큰

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성자는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항상 종교적 궁극성과 함께 사는 사람이며, 자유로운 사람이며, 자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킨다. 이러한 종교적 성자성의 특징은 불교적 성자인 붓다나 보살, 그리고 선지식의 인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적 불교인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항상 선정에 들어 불성의 현전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 자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모든 존재를 자신의 생명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불교의 인간교육은 이러한 종교적 성자성 교육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혜를 일깨우는 교육, 자비의 실천 교육, 집착없는 자유로운 마음의 계발 교육, 그리고 주체적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에 대한 성문화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위와 같은 불교적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별로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교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종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교육이다. 객관적 차원의 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배려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다. 객관적인 종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불교를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편견이나 물이해를 불식시키고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하나로서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객관적 불교문화에 대한 교육은 객관적 학문 연구방법을 통하여 역사, 윤리, 국어, 사회 등 현행 중등학교의 여러 교과와도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종교 교육은 종교적 인격교육을 위한 예비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향하는 종교적 인간상은 ‘다양한 종교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종교학적 교양을 지닌 인간’이다.

둘째,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적 인간학으로서의 종교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의 종교적 심성 계발과 도덕성 함양을 지향하는 종교성 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종교적 가치관 교육을 중심으로 불교가 지니고 있는 인간학적 보편성, 불성의 인간학적 가치, 자비와 평등심, 긍정적 인생관, 불교 윤리의 보편성, 죽음에 대한 사유, 자연과 우주와의 합일, 우주와 세계의 존재 원리, 주체적 삶의 길, 자유정신과 테두리 없이 열린 마음 등의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정신에는 이러한 보편적 종교성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불교라는 종파적 이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종교적 심성을 도야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교적 종교성 교육은 다른 지식 교육으로는 성취 할 수 없는 정신적 능력과 상상력을

생활 가운데 있다. 둘째는 이상적인 힘과 자신의 생명과의 사이에 친애의 연속성이 있다는 의식이다. 셋째는 이기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걸림 없는 마음의 기상이 있다. 넷째는 감정의 중심이 조화 있는 사랑과 애정으로 진행된다. 성자성에 대한 이론으로는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대한기독교서회, 1998), 제11-13 강연, pp.309-368 참조

길러줄 수 있다. 여기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모든 인간을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⁵⁾으로 보는 인간관과 삶과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종교성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다. ‘종교적 인간이란 마음과 행동 속에 성스러움이나 영원을 지니고 사는 사람’⁶⁾으로 항상 거룩한 실재나 궁극적인 것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인간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종교적인 성스러움으로 채우려는 사람이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불성의 지혜를 깨달으려는 인간이며, 항상 생명의 환희와 다른 생명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불교 신자 또는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보다 깊은 불교의 교리 이해와 종교체험을 통하여 신심을 고취시켜 이상적인 불교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신자화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불교학생회 등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행해 질 수 있다. 이 경우는 경전독송이나 불교의례의 참여, 참선이나 염불 등의 구체적 불교 수행 교육을 통하여 ‘중생심(三毒心) 중심의 삶을 불심(佛心)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체험’을 목표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불교적 신심을 바탕으로 불성을 모든 생활에 구현하려는 보살형 인간상’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불교 신앙교육도 배타적 선교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는 이웃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고 열린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불교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적 배타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종교계 사립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배타적 종교교육이나 교육적 차원을 벗어난 선교교육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⁷⁾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은 이 세 유형의 종교 교육을 종교교과 담당자(교법사)들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차원의 종교교육이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인간 또는 불교적 인격을 지닌 인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종교과 담당자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위의 세 차원의 종교교육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교양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정신문화의 하나로서의 종교성을 계발시켜 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5) 이러한 이론의 근거로서 불교에서는 ‘불성(佛性)’, 도교에서는 ‘도성(道性)’, 유신론적 신비주의자는 ‘신성(神性)’ 또는 ‘천성(天性)’, 그리이스의 종교에서는 ‘로고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등의 신아(神我)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들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 존재론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6) *Homo Religiosus*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Max Scheler, *On the Eternal in Man*(London: 1960),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New York, 1959), Joachim Wach, *Sociology of Religion*(Chicago, 1944) 등 참조. 종교적 인간이란 개념은 이외에도 탁월한 종교적 지도자나 성자와 같은 인격을 지닌 한 개인의 특별한 종교성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즉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나 성인을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7)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불교계 종립학교와 기독교 종립학교에서의 차이는 그 종교의 교의와 이웃종교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실제로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불교 사상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인생관을 지니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보다 한 단계 나아간 ‘불교 신앙교육’은 종교성 교육과 종교 문화교육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별 활동시간 등을 활용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II. 불교계 종교교재와 교육의 목표설정 문제

교육용 교재인 교과서란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학습에 편리한 형태로 편집한 도서이다. 교과서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화된 것으로 교육목적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편찬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교육목적에 상응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한 조직적인 학습활동 전개 계획이므로 종교교과서로서의 적격성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도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종교교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 편제된 8가지 교양과목(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종교) 가운데 하나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양 교과의 포괄적 목적은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도 이러한 보편적 학교교육의 목표에 동참해야 한다.⁸⁾ 7차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과 교육은 다음 같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 ①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
- ② 실존적인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
- ③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⁹⁾

이러한 종교교육의 기본 성격 제시는 특정 종교교육보다는 보편적 종교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종교교육 목표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여기

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PP. 124-128.

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 -》, P. 124.

10) ①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인격을 기르고, 교리와 신화, 종교 의례, 종교 공동체의 특성을 토대로 종교가 실존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②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기른다. ③ 개인의 자아 성숙과 건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이해한다. ④ 한국 종교사의 이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여 온전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한다. ⑤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과 사회적 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⑥ 각 종단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종교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편적 종교교육의 목표는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종단 학교의 교육목표를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각 종단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¹¹⁾

이러한 모호한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에 대한 교육목표는 학교교육을 선교 교육화하는 것을 방지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교육을 허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상 유의점 등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면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에는 종교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불교계 학교의 종교교과서는 기존의 ‘불교교본’ 또는 ‘불교’ 교과서의 불교 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종교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내용선정과 종교이해를 통한 종교성 함양에 주안을 두고 편찬되었다.¹²⁾ 이 교재는 객관적 불교문화교육과 불교 세계관의 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보편적 종교성에 대한 개안, 그리고 불교 수행의 세계에 대한 깊이도 감지케 하여 학생들이 진실로 자신의 궁극적 인생관 수립과 종교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불교 교과서 중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불교)』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종교교육의 과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 ②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③ 이러한 궁극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존재의미와 가치를 실현한다.¹³⁾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교과서는 “세계 여러 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민족과 인류의 이상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교 학습을 통하여 세계의 중요 종교와 불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여, 시대를 선도해가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그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PP. 124-128.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PP. 129-130.

12) 현행 불교계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재 가운데 《종교(불교)》(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는 서울특별시 대체적으로 7차 종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영역을 교과 내용으로 거의 반영하고 있는데, 특수 종교 편은 6차와 내용은 동일하고, 7-14단원까지 8단원으로 하고, 일반 종교이론을 6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비율은 4/3으로 되어 있다. 제4영역 ‘특정종교에 대한 내용’(제 8단원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은 개별종교로서 ‘불교’에 대한 내용이지만 신앙적 종교교육보다는 객관적 불교문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종교(불교)》(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 p.5.

종교교육 목적과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으나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모순이 없으며 그 정신과 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계 종교교과서는 이와 같이 종교교양교육으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아울러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육을 융합하려는 시도하고 있다. 종교교양교육의 목표가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교양인 육성과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한다면 불교와 같은 특정 종교를 통해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역으로 불교교육도 보편적 종교교양 교육과 같은 논리와 맥락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계 종교교재도 이러한 ‘보편과 특수’의 관계가 상호 순환적으로 상응되게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 교육을 통한 일반목적의 달성 또는 일반 목적에 상응하는 특정 종교교육 과정화는 쉬운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상치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불교교과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종교계 교과서보다 훨씬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본다. 불교계 종교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반적 종교교양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불교를 서술하고 있다. 불교교육은 ‘불교가 지닌 교설의 개방성과 포용성’¹⁵⁾ 때문에 구태여 종파교육과 교리주입 (indoctrination) 교육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건학이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적 인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IV. 교육과정과 불교계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1. 종교교과서의 적격성 평가기준

종교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불교계 교재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과정 및 평가 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제 요소를 유기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아래의 ‘종교교과 평가기준 지침’¹⁶⁾과 종교

14) 위의 책, p.5

15) 불교의 개방성과 보편성은 붓다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붓다는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붓다는 진리의 창조자가 아니라 발견자였다는 점이다.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은 간에 현상의 본성, 현상의 규칙적인 형태나 조건성으로서의 연기법은 존재한다. 이를 여래는 발견하고, 이해하고, 드러내 보이고, 가르쳤다.” 《상응부경전》(II. 25). 여래가 세상에 나오던 나오지 않던 간에 연기의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진리는 누구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 설사 불교를 만 날 인연이 없었던 이도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에서 독각불(獨覺佛)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예배까지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2), pp.138-143 참조.

16) 「교과 용도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841호, 2000. 6. 19)에 의한 심의규정. “종교교과서

교육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교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내용선정과 조직

1.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교과의 목표 및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2.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궁극적인 실재의 문제를 통하여 종교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이되었는가?
4. 내용이 정확한 근거 위에 서술되었으며, 거짓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5. 사실 및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6.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 난잡한 내용은 지양하고 있지 않는가?
7. 특정한 내용에 치우쳐 균형을 잃거나 특정한 것을 선전, 비난하는 내용은 없는가?

2) 내용의 진술

1. 내용은 보편화된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2. 내용은 학문적 체계, 교수-학습체계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3. 학생의 지적 발달단계와 학교 급별 교과수준에 맞게 진술되어 있는가?
4. 학생의 학습경험과 관련지어 있으며,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는가?
5. 활자의 크기, 지형 등은 적절하며, 외래어의 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정확한가?
6. 내용의 표현과 용어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는가?
7. 내용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어 있는가?

3) 편찬체계

1. 내용은 학교 급별, 단원 간에 계열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2. 인간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전체적인 조망능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중시하고 있는가?
4. 종교 철학의 측면에서 본 우리 가치관의 현실과 당면과제를 바르게 제시하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인 배려는 적절한가?
5. 종교의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학습안내가 되어 있는가?
6.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위의 교과서 적격성 평가표는 7차 교육과정의 체계와 부합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기준에는 종교교과의 특성상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고찰’과 ‘궁극적인 실재의 문제를 통한 종교 학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다른 구성내용은 일반 교과서에도

공동으로 적용할 수는 항목이다.

2. 교재의 분석과 비교 평가

그러면 현행 불교계 종교교과서의 교재로서의 적격성은 어떠한가?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교재를 편찬하였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현행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불교)』에 대하여 외형적인 체제와 교재 내용과 구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앞으로 개선 방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교재의 외형적 체제

교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 그 교재의 내용이다. 그러나 요즘은 교재의 내용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외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성공적인 디자인은 학습자에게 그 책에 대한 흥미와 학습효과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교재의 외형적 체제는 6차 교재에 비하여 디자인과 색채감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 한 수준은 아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색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재에 대한 첫 느낌은 표지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지에서 친근감과 그 주제에 대한 느낌을 부담 없이 암시해 준다면 그 교재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 교재의 표지는 불국사, 연등제,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반가사유상 등의 칼라 사진을 네 개 싣고 있다. 이 사진들은 불교를 대표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역사책에 더 적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널리 알려져 있는 평범한 사진들은 참신한 느낌이 들지 않아 불교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예: 자연스러운 산사의 고요한 정경, 만다라,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오는 붓다의 모습 등).

교재에서 삽화와 사진은 색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교재 내용과의 연계성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배치된 곳이 적지 않다.(예: p. 52는 내용은 유교에 대한 설명인데 사진은 불교인의 호스피스 활동. p. 16의 보충설명이 없는 <해제법어광경>, p.21의 <사군자>, p. 73의 <카메룬 어린이들의 코란교육>, p. 126 종교 간의 화해와 이해에 <올림픽 개회식> 장면 등).

활자와 편집은 신세대의 취향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양교재이므로 지나치게 학술적인 느낌을 주는 편집도 지양되어야 한다. 간단명료한 개념 정리와 소재목의 삽입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도록 편집해야 한다. 어떤 내용은 논문형식에 가까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감을 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세대의 감성에 맞는 사이즈로 교과서를 두 권으로 분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교재의 내용 및 구성

① 교육의 목적과 교과내용의 상응성

불교적 인격교육의 목적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지혜인, 자비인, 주체인, 자유인의 형성에 두고, 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학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케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특정 종교 신자 여부를 떠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불교적 교설에서 찾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가 단위별 교육목표로 구체화 되어 진술되고 교육내용도 일관성 있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②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정도, 흥미도와의 관계

현 교재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난해하다고 할 수 있다. 흥미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딱딱한 철학적 성격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로 인해 교재 자체로는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윤리나 역사교과서와 다른 교과서 차원의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의문과 의미있는 삶을 위한 심층적인 교과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흥미유발을 위해서는 교재 자체를 좀 더 학생들의 현실적 정서와 맞는 테마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성, 스포츠, 가정, 경제문제, 전쟁, 기아, 환경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답을 불교에서 찾는 방식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재를 통하여 불교가 우리의 생활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빨리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내용의 안배와 효율적 편집

내용이 교리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문화사적 관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것을 요약 정리해 주는 정도의 구성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소제목의 통일성의 결여가 눈에 띄고 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불교용어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못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다종교 사회에서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에 따른 고려

학생들로 하여금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불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불교가 지금 우리시대를 이끌 정신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가 지닌 진리의 보편성과 논리성, 관용성을 이해한다면 불교의 합리적인 가르침은 종파적 신앙교육의 강조 없이

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⑤ 학습량과 시간의 문제

실질적으로 정해진 강의시간 안에 교재내용 전부를 소화할 수 는 없다고 본다.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을 주제별로 축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양범주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며, 토론과 사색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한불교진각종 편찬 종교교재와의 비교

이제까지 검토한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교재와 대한불교진각종 편 종교교재와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비교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목차의 비교

제7차 교육과정 내용항목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교재 목차	대한불교진각종 편 종교교재 목차
1. 인간과 종교	1. 인간의 삶과 종교	
2. 종교 경험의 이해		1. 종교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2. 세계의 종교	
4. 세계 종교와 문화	3.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2. 세계의 종교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4. 인간과 자연 그리고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5.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3. 한국의 종교
7. 종교 공동체	6.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할	5. 종교간의 대화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7. 불교의 출발 8. 깨달음의 세계 9. 대승의 진리 10. 불교의 윤리 11. 한국의 불교 12. 불교와 예술, 13. 불교의 신행, 14. 불교와 새로운 문화의 창조	4. 한국의 불교문화 6. 부처님의 가르침 7. 소승 불교 8. 대승 불교 9. 밀교 10. 불교진각종과 한국문화의 창조

(2) 주제별 구성 비율

7차 교육과정의 내용항목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교재		대한불교진각종 편 종교교재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인간과 종교	인간의 삶과 종교	6%	종교일반	8%
종교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의 종교	4%		
세계 종교와 문화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13%	세계 종교	13%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8%	한국의 종교	17%
종교 공동체	현대사회의 종교의 역할	8%	한국의 불교문화	6%
			종교간의 대화	3%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불교	55%	불교	19%
			밀교	53%

위 통계를 요약하자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부분이 전체의 약1/8(12.5%)로 되어 있으나, 두 종교교과서의 모두 특정 종교 부분이 55%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이다.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진각종 교재가 밀교종단의 독특한 교리체계에 따라 종파주의적 불교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각종 교재에는 현재 세계불교계에서 기피하고 있는 용어인 ‘소승불교’라는 단원을 따로 두고 있으며, 밀교에 대한 내용과 진각종의 성립과 배경, 진각종 수행 등으로 50%이상을 채우고 있어 특정 종단의 종파적 교육교재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표지화의 종교상징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교교육연합회 편 교재의 표지화는 불국사, 초파일 연등, 팔만대장경, 반가상 등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진각종 교재는 보리수잎 가운데 옴마니반메흠(비로자나불의 뜻을 함축적으로 상징한 범어 진언으로 자신의 본성과 우주의 진리를 항상 함께 상통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새겨 넣었다. 또한 불교교육연합회 편 교재 서두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한문 원문과 한글 해석)을 넣었고, 진각종 교재에는 심인당의 탑을 상징화로 넣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교육연합회 편 교재와 진각종 교재는 보편적 종교(불교)교육과 종단적 종교교육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V. 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의 순환적 교수-학습 모델

7차 교육과정에는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¹⁷⁾ 이는 종교문화 교육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종교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따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종교계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두 가지 종교교육, 즉 종교문화에 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에 대한 교육과 특정 종교의 교리와 경전, 역사 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신앙교육의 두 차원을 연결하는 방법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불교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또는 ‘세계 종교사 맥락에서의 불교사 이해’와 같은 ‘보편적 종교문화교육’과 ‘특정 종교교육 이해교육’의 순환적 교육과정의 구성과 이에 따른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¹⁸⁾ 이러한 범례 수업의 모델은 종교현상학적 유형론에 따라 (1)궁극적 실재 (2) 세계관 (3)인간과 종교경험 (4) 종교수행 (5) 종교의례 (6) 개인윤리와 이상적 삶 (7) 사회윤리와 이상적 사회 (8) 창시자 (9) 종교공동체 등을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일반-특수 종교의 범례화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¹⁹⁾ 이 외에도 종교현상에 대한 주제적 분류는 니니안 스미트(Ninian Smart)가 체계적 역사적 모델(systematic historical models)에 따라, 종교의 경험적 차원(experiential dimension), 신화적 차원(mythical dimension), 교리적 차원(doctrinal dimension), 제의적 차원(ritual dimension),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윤리적 차원(ethical dimension), 물질적 차원(material dimension) 등

17) (1) 교과서에서 제시한 주제와 예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식 수업을 전개하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중시한다. (2) 종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종교적 가치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학생들이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발언에 대해서 서로 자제하여 화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다종교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5) 여러 종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별 종교 단체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토론 학습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도록 유의한다. (6) 수업하기 전에 발문과 수시 평가 내용 및 과제물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키고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서울: 교육부, 2001), pp. 147-148.

18) 이러한 아이디어는 “보편과 특수 의 서로 상보적인 관계와 특수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하나의 종교적 범례로서 불교를 설정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종교학적 지식의 습득과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범례수업(範例授業: Exemplar instruction)’의 제안”(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2001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회의)에 대한 대한 필자의 논평문을 구체화 한 것이다.

19) 김용표, 「불교연구를 위한 종교학의 의미와 역할」 《한국불교학》 제33집 (2003), pp.394-399 참조. 이러한 구상은 국내에서 발간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이 책은 비교종교학에서 시도되어 온 종교현상의 유형화 이론에 따라 각 종교의 경전을 9개 차원의 대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으로 나누어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이러한 유형별 모델을 통해 보편 종교 이론과 이에 해당되는 불교 이론을 상호 유기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니니안 스마트는 이러한 모델이론을 그의 저서 『세계종교』에서 적용하고 있다.²¹⁾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불교 기술은 불교를 보편적 종교이론으로 이해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부분적 이해보다는 불교와 세계종교를 전체적으로 다층적 조망법 (holistic-multi-perspective)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형과 모델의 더 세밀한 분류의 문제는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²²⁾

세계종교사를 비교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서술하고자 한 트레버 링(Trever Ling)은 세계적 맥락(world context)과 종교사 전체의 관점에서 특수 종교를 보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²³⁾ 그의 관점은 종교사는 전 지구의 역사와 세계종교사라는 맥락에서 개별 종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종교사학은 불교사나 기독교사와 같은 특수 종교사 보다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일반종교사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음과 같이,²⁴⁾ 종교교과서의 기술에도 이러한 방법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불교를 비롯한 특수 종교를 보편적 종교문화의 일부로서 보는 지평의 확대에서 불교를 세계종교사와 인류의 지성사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보는 시야를 넓게 해 줄 것이며, 또한 불교와 다른 문화 형태

20) Ninian Smart, *World View: Cross cultural Explanations of Human Belief*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95, 2nd ed); *The Religious Experience of Mankind*(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2nd ed.1976) 참조.

21) 김희성, 김용표, 이정배, 이강수, 홍성엽, 이기동, 김영경 공저,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전통문화연구원, 2001) 참조.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도교, 동학,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등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불교 경전 관련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궁극적 실재(1.법신 2. 불성 3. 공 4. 진여실상) II. 세계 · 존재 · 인연 (1. 세계의 생성인연 2.무상과 생주이멸 3. 존재의 법칙) III. 인간과 종교적 체험(1. 인생의 괴로움 2. 무명과 윤회 3. 열반과 해탈 4. 지혜의 완성) IV. 종교수행 (1.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 2. 선정 3. 보살도의 수행 4. 인욕과 정진) V. 의례 (1. 귀의와 예경 2. 참회 3. 발원과 회향 4. 염불) VI. 개인윤리와 이상적 삶 (1. 업보 2. 삼독 3. 무소유와 무집착 4. 선행) VII. 사회윤리와 이상적 사회 (1.평등심 2. 생명 존중과 자비 3. 보시(布施) 4. 사회의 윤리 5. 국가의 윤리 6. 불국정토 건설) VIII. 창시자 (1. 여래의 지혜 2. 여래의 수승한 모습 3. 붓다의 인격 4. 붓다의 교육방편 5. 여래의 본성 6. 부처님의 생애) IX. 종교공동체 (1. 불법안에서의 평등 2. 화합의 공동체 3. 교단의 성립 4. 아라한과 성인).

22) 예를 들면 엘리야데의 종교현상학적 주제인, 우주, 신, 자연, 시간, 신화, 주술, 하늘, 자연, 산, 들, 성, 구원, 죽음, 성전, 예술, 공간 등의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3) Trevor Ling, *A History of Religion East and West* (New York: Macmillan, 1985).

24) 일반종교사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Ninian Smart, *The Religious Experience of Mankind*,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76). Niels Nielsen, C.Jr.,ed., *Religions of the World*, (St, martin's Press, 1988), Segel Tokarev, *History of Religion* (Progress Publishers, 1989) Trevor Ling, *A History of Religion East and West* (New York: Macmillan, 1985). Mircea Eliade,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Chicago university press, 1978). John Noss, *Man's Religions* (New York: Macmillan), 윤이흠 역, 『세계종교사 上·下』(현음사, 1986). Smith Huston, 『세계의 종교들』, 이상호 역(연세대 출판부, 1991) 등 참조.

들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역사 교육도 세계종교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고 다른 종교 사상과의 교섭 관계를 중시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정 종교를 따로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종교의 보편적 현상과 특수종교의 순환적 교과 과정을 구성한다면 불교를 세계종교사와 인류의 지성사와 관련해서 이해케 하여 불교를 보는 시야를 넓게 해 줄 것이며, 또한 불교와 다른 종교문화 형태들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편과 특수 상보적 교과과정의 구성을 통해 '종교(불교)'교과 교육의 교육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편적 종교교육을 위한 가교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VI. 불교계 종교교과 교재의 발전 과제

불교 교양교재의 내용과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서 밝혔듯이, 현행교재의 내용 및 구성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종교 (불교)』 교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편적 종교문화교육'과 '특정 종교교육'의 순환적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해 목차 구성을 현행과 같이 수직적으로 하지 말고 교차적으로 재구성한다. 종교에 대한 전체와 부분, 보편과 특수 상보적 이해는 특정 종교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 순환 구조보다 내용의 보편적 순환 구조이다.²⁵⁾

둘째, 불교의 인간 이해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실존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단순한 교리 나열식 보다 경험적인 내용과 평이한 문체로 인간 실존의 한계와 불안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길을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²⁶⁾ 불교의 교리를 평이하게 기술하고 이를 경험적인 차원으로 연결하여 기술한다. 학생들과 가장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관심분야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

25) 이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계 종교교재는 오히려 종파교육을 위한 순환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편, 종교(기독교), 2002. 참조.

26) 이점에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종교》(가톨릭문화원, 2002) 교재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교재의 제1장에서는 '나를 찾아서' 라는 장에서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여 종교란 무엇인가로 시작되는 불교의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2장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장으로 나에서 우리로,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첫째장보다 좀 더 큰 틀에서의 문제를 제기한다. 가톨릭교재는 2장에 와서 맨 마지막에 종교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셋째 장에서는 '이웃의 종교'를 통해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구성에 있어 불교교과서와는 다르게 중간 중간 글씨체를 다르게 한 소재목을 통해 문단 정리를 하여 내용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편집했다.

선되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보다는 불교 교설이 현실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필진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편집위원회에서의 문체의 통일과 운문을 통해 단일 교재로서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편집에 있어서 소재목을 고딕으로 넣어 내용의 파악과 분석이 용이하게 한다. 한자 숙어 등의 불교용어를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언어로 대체한다.

넷째, 서양의 불교와 세계불교의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장이 필요하며 21세기의 인류 문명의 방향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도 필요하다.

다섯째, 단원별로 그 주제 알 맞는 불교 성전을 발췌하여 부록으로 실는다. 또한 단원별로 참고 문헌을 제시한다.

여섯째, 불교관련 영상매체나 인터넷 불교정보에 관한 참고자료를 소개하여, 교재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수업 내용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함께 찾아보며 자유롭게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하여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으로 편찬된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불교시청각 교재』(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4)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흥미있는 수업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종교계 종립학교에서 안고 있는 종교교육의 모호성과 현실적 고민은 종교교육과정과 교재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 종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종교교육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종교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종교의 보편적 현상과 특수 종교의 상호 순환적 교과과정 구성은 특정 종교와 세계종교와의 유기적 인식은 물론,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이해 지평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James, William (1958).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 Moore, Mary Elizabeth M. (1995). "The myth of objectivity in public education: Toward the intersubjectivity teaching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Vol.* 90-2
- Sealy, J.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 강돈구의 역, 《종교교이론》, 서울: 서광사. 1992.
- Streng, Frederick J., Lloyd, Jr., Charles L., Allen, Jay T. (1973). *Ways of being religiou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종교》, 가톨릭문화원, 2002.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교육부,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교양)』: 교육부 고시7차 교육과정, 2001.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편, 종교(기독교), 2002.
- 김용표,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학 연구』 제2집, 1997.
-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 출판부, 2002.
- 김용표, 「불교교양교재 “불교와 인간”에 대한 재검토」, 『효율적 교수방법을 위한 동국교육 포럼 VI』, 동국대 교육연구원 (2002).
- 김용표, 「불교적 인간교육의 이념과 방향」 한국불자교수연합회 편,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회의 논집』, 2001.
-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제2집, 1997.
-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1995). 종립학교운영현황 자료집.
-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종교교육학연구』, 제1집, 1996.
- 불교교육연합회, 『고등학교 종교(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
- 불교교육연합회, 『중학교 종교(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2002.
- 불교교육연합회 편,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불교시청각 교재』, 조계종출판사, 2004.
- 양은용,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 전국교법사단,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1994.
- 전국교법사단,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시안): 6차, 1998.
-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원고접수: 2006년 5월 15일 1차심사: 5월 28일 게재승인: 6월 11일

연구자 소개: 김용표

① 전공: 종교학, 불교학, 종교교육학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학, 불교경전해석학, 비교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불교와 종교철학』,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공저),4
『한국종교와 인격교육』(공저)4

④ E-mail: sunyata@dongguk.edu

Abstract

Teaching Materials on Religion in the Buddhist Mission School: A Proposal for the Circulative Curriculum between Buddhist Education and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Kim, Yong-Pyo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teaching materials on religion currently used in the Buddhist mission schools and to suggest the ideal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is analysis and evaluation. Is it truly possible for us to have universal education through a specific religion such as Buddhism?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most urgent problem in Korean religious education is to elevate the sectarian-oriented education of religion up to the level of a universal dimension of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and suggests a new religious education model through the study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wo revised religious educational texts in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Religion (Buddhism)* (Jogye Order, 2002) and *Religion (Buddhism)* (Jingak Order, 2002), in terms of the current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 in the mission schools. Since the content of religious education has a close and direct relationship with it's educational, It is examined how this new dimension in religious education is applied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text from various perspectives.

Especially, it is suggested that an interrelated model between a specific religious education and a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through providing various kinds of examples with such an approach so as to understand Buddhis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and science of religion. The eligibility of religious texts, in this sense, is evaluated by its adaptability to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nd the table of contents, the level of content and students, the principle of interrelationship and continuity,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ligions. Futhermore, we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Buddhist edu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two Buddhist mission schools mentioned above. And we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through Buddhism.

Key words : Buddhist mission school, religious text,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of education, Buddhist education.